

혁, 물리면 중독...뱀파이어의 치명적 매력

온몸 찢릿...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



시큰둥하게 나가다가 '퀵'을 만나는 행운은 소개팅에만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공연장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 별다른 기대없이 공연장을 찾았다가 첫 장면에서부터 숨이 턱 막히고 오장육부가 벌떡거리는, 공연의 신이 내리는 은총에 전율할 때가 있다. 물론 이런 기적은 1년에 잘 해야 두어 번뿐이지만.

소심남 프로페서V '악마와의 거래' 매력 얻고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로 단출한 출연진...두 남자 2시간 공연 배우 독 품은 연기...무대에 광기가 록콘서트-로맨스 분위기 여심 홀려

●두 명의 남자배우가 펼치는 절정의 감동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포스터)가 '거의' 그랬다. 오장육부에는 다행히(?) 이상이 없었지만, 적어도 공연을 보는 내내 몇 번이고 감동의 전류가 찢릿찌릿 몸을 훑고 지나갔다. '마마, 돈 크라이'(줄여서 '마돈크'라고 부른다)는 꽤 독특한 구석이 있는 작품이다. 일단 등장인물이 매우 단출하다. 달랑 두 명의 남자배우가 나와 두 시간 공연을 끌어간다. 늘씬하고 썩시한 여배우의 등장을 기대한다면 번진수가 틀렸다. 캐릭터도 특이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영화, 소설, 만화에서는 인기 캐릭터지만 무대 공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뱀파이어, 즉 흡혈귀가 주인공이다. 화자로 극의 대부분을 끌어가는 천재 과학자 '프로페서V', 그리고 뱀파이어인 드러클라 백작. 이 두 캐릭터가 '마돈크'의 두 등장인물이다. 천재적인 두뇌를 타고 났지만 연애에는 영 소질이 없는 프로페서V의 소원은 조인성을 능가하는 초절정 매력남이 되는 것. 열 살이 되기도 전에 시작한 짝사랑의 여인이 있지만(프로페서V는 그녀를 '메텔'이라고 부른다) 10여 년을 곁에 두고도 말 한 마디 못 붙여보는 소심남 프로페서V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타임머신을 만들게 되고, 결국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드러클라를 만나게 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눈길만 한 번 주었다 하면 그대로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우주 최강의 매력남 드러클라. 그는 사랑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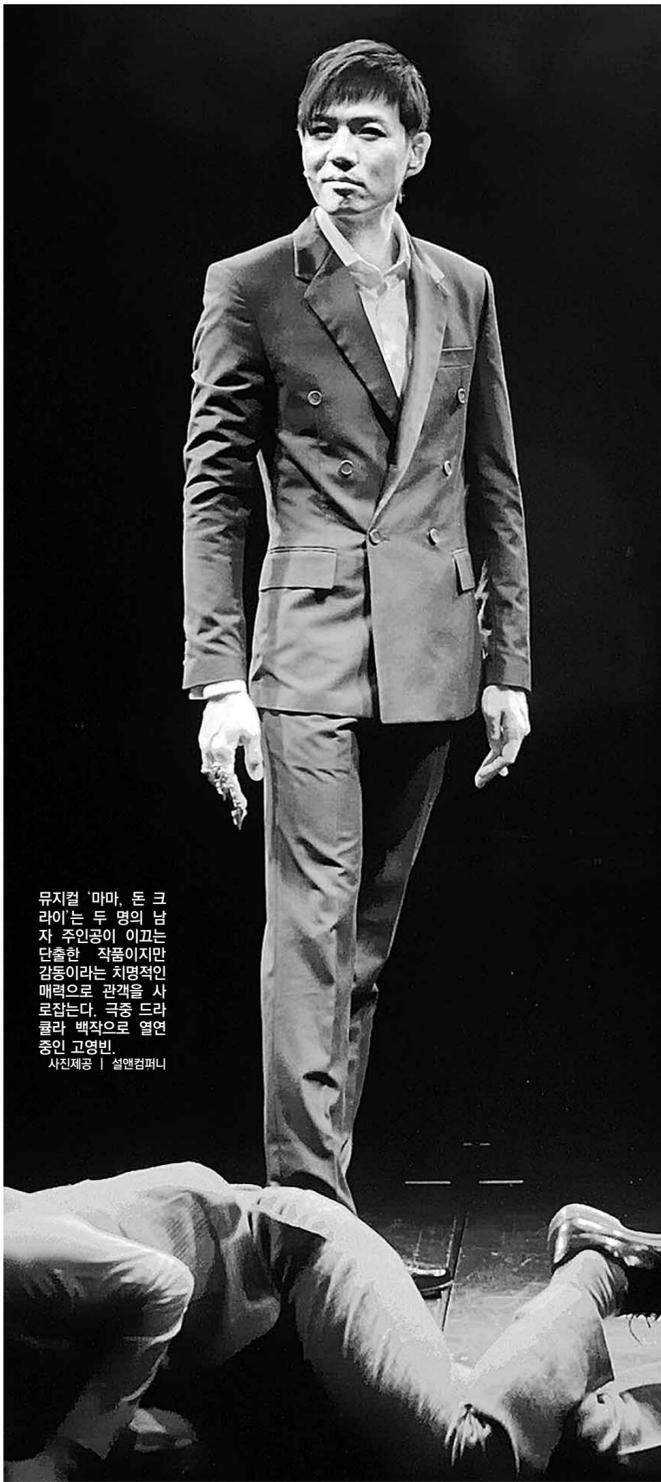
양기자의 내 맘대로 평점

감동 ★★★★★ (무대에서 배우가 흘리는 땀만으로도 감동이 출출)
웃음 ★★★★★ (웃기는 장면이 곳곳에 있다. 다만 드러클라는 한 번도 웃겨주지 않는다)
음악 ★★★★★ (록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파워풀한 퍼레이드)
무대 ★★★★★ (단출한 무대, 조명을 이용한 그림자 효과는 좋았다)

애걸하는 프로페서V에게 '영원한 매력'을 선물로 준다. 그리고 남기는 한 마디. "아무도, 사랑하지 마."

●한 품은 프로페서V vs 그로테스크한 뱀파이어

현실로 돌아온 프로페서V는 모두의 사랑을 받는 매력남이 되지만 밤마다 여자의 피를 찾아 하이어나처럼 거리를 떠도는 뱀파이어가 되고 만다. 뒤늦게 드러클라의 축복은 축복이 아닌 저주임을 깨닫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 버린 일.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는 운명 앞에서 프로페서V는 이 작품 최대의 명곡을, 그야말로 온 몸을 땀으로 샤워하며 목 놓아 부른다. 바로 '마마, 돈 크라이'. 하루는 록밴드의 보컬리스트로, 하루는 배우로. 마치 프로페서V와 같은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송용진이 프로페서V를 말했다. "노래보다는 연기에 중점을 두겠다"라던 그의 말처럼 '마돈크'에서 그의 연기는 반짝반짝 빛이 난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리지만, 배우가 '독'을 품으면 무대에 광기가 스며든다. 이번 '마돈크'가 그에게는 광기 스민 무대다. 드러클라로 나선 고영빈은 살짝 놀랐다. 어느덧 중견배우가 된 고영빈이 '치명적인 매력'의 뱀파이어를 어떻게 보여줄까 싶었는데, 확실한 기우. 고영빈의 시니컬한 표정은 섬뜩한 마력을 풍겼고, 흐느적거리는 몸짓은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썩시했다. 여기에는 그의 긴 팔과 다리도 한 몫을 했겠지만, 배우들의 동작과 안무를 만든 최인숙 안무감독의 솜씨 덕이 컸을 것이다. 록 콘서트와 로맨스의 분위기를 위쳐 놓은 듯한, 한 번 '물리면' 중독이 되어버릴 것 같은 작품. '마돈크'는 5월26일까지 서울 흥인동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에서 공연한다. 마지막 초연 돌. 2010년 초연 때는 프로페서V와 멀티맨이 등장하는 사실상 모노극이었다가 이번에 2인극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관객의 90% 이상이 여성관객이다. 남자 혼자 가면 많이 외롭다. ▶프로페서V: 송용진, 허규, 임병근/드러클라: 고영빈, 장현덕 출연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편집 | 강문규 기자 mkkang@donga.com 트위터 @mkkkang



뮤지컬 '마마, 돈 크라이'는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이 이끄는 단출한 작품이지만 감동이라는 치명적인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극중 드러클라 백작으로 출연 중인 고영빈. 사진제공 | 셉템컴퍼니

컬처박스

흥미진진 서울의 과거·현재·미래 엿보기

●오래된 서울(최종현 김창희 지음 | (주)디자인커서)



도시는 인류가 만들어 낸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다. 도시에는 정치와 경제, 문화, 윤리체계, 역사, 상업, 문화 등 인류가 향유하는 모든 문명이 압축돼 있다. 때문에 도시 역사의 상징물을 안내하는 답사기는 흔해도 그 안에 감춰진 원형을 파헤치고 새롭게 복원해 전혀 다른 서사로 펼쳐 보여주는 책은 만나기 어렵다. '오래된 서울'이 반가운 이유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원형을 다양한 층위와 앵글로 추적해 들어가며 소멸된 과거와 변화하는 현재, 먼 미래의 가능성까지 새롭게 열어 보여 주는 보기 드문 역사서이자 문화 비평서라는 점이다. 공동 저자인 최종현 전 한양대 교수와 언론인 겸 저술가 김창희 씨는 도시가 품은 역사적 사실(유물과 유적)을 일일이 발로 뛰며 재확인하고, 그 너머에 감춰진 서사를 대중적인 글쓰기와 인문학에 기반한 독특한 상상력을 앞세워 입체적으로 풀어냈다.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대하드라마처럼 장쾌하고 탐정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전개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서울의 감춰진 이야기를 풀어나고, 근·현대의 인물들을 불러내 도시와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을 고증하는 이 특별한 작업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광희문(남소문) 주변을 다룬 둘째 권과 정동과 남산, 낙산과 종로·청계천 등을 다룬 셋째 권이 잇따라 출간될 예정이다. 가히 '서울학'이라는 학문을 집대성할 태세다.

세계 곳곳서 맛본 여행자의 식탁 이야기

●그래도 나는 당신이 달다(변종모 지음 | 허먼버드)



여행에 관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다. 클릭 한 번이면 지구 반대편 도시의 날씨와 맛집, 관광 명소를 손쉽게 리뷰할 수 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 만난 낯선 이방인이 권하는 와인 한 잔에 담긴 정서와, 골목만 대면에서 들려오던 낯선 음식이 주는 기시감, 쿠바의 어두운 카페에서 마시던 모히토의 깊은 맛은 느낄 수 없다. 변종모의 여행 에세이집인 '그래도 나는 당신이 달다'는 세계 곳곳에서 만난 인연의 소중함과, 뜨거운 한 끼의 애잔함을 독자의 뇌리에 깊이 각인시킨다. 저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 속 수 많은 인물들과 만찬이라도 나는 듯 정서적인 포만감이 느껴지는 책이다.

나도 카레이서...안산스피드웨이 완전정복

●나도 카레이싱을 할 수 있다(이즈카 쇼조 지음 | 부록 이동훈 장순호 | 골든벨)



수입차 대중화로 고성능 자동차들이 넘쳐나고 있다. 하지만 차량의 성능에 비해 운전 스킬이 뒤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드라이버까지는 못되더라도 자신의 차가 가진 특성과 성능을 이해하고 좀 더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지침이 될 만한 책인 '나도 카레이싱을 할 수 있다-서킷공략법'이 개정 출판됐다. 일본책인 '서킷 주행 입문'을 기초로 국내 최정상급 카레이서인 장순호와 이동훈 레이싱아카데미 대표가 국내 실정에 맞게 내용을 보강했다. 실전 드라이빙 테크닉은 물론 F1서킷, 안산스피드웨이 공략법까지 충실히 수록됐다.

원성원 기자 sereno@donga.com 트위터 @serenowon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단 한번 '뉴 맨'!! 평생 단단한 놈!!



대표이사 서영숙

www.newm.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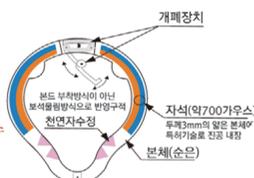
NAVER 뉴 맨

네이버에 뉴 맨을 검색하세요

· 일본지사 T. 03-6278-9461
· 중국지사 T. 0433-286-5031

▶ 남자는 원한다!
킨제이 보고서에서 20대는 하루1회 30대 주4회 40대 주2회 50대 주1회 60대는 월3회 정도의 성생활을 한다는 보고를 냈바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성은 이보다 많은 횟수를 원한다. 특히 더 크고 강해져서 여성이 만족할 만큼의 시간을 지속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다.
▶ 남자가 변한다!
'뉴 맨'은 젊고 발기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더 크고 두꺼워져서 시간과 횟수의 연장을 원하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기 강도가 약해지고 중간에 시들어 약물의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운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믿기 어려운 만큼 키지고 단단하고 강해져 횟수와 시간에서 최고의 남자를 만들어준다.
▶ 최강! 최다의 기록! '뉴 맨'!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확대, 조루, 발기력 강화의 효능을 인정 '남성 성기능 강화용 링'이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유일하게 발명특허를 받은 '뉴 맨'은 2005년 각종신문매체에 광고 판매를 시작, 현재 8년간 8천여회의 신문 광고로 단일제품 사상 전무후무한 최장기간, 최대매체의 광고기록을 세웠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20여개국 수출, 50만 고객 돌파의 쾌거도 이루었다. 50만 고객의 의미는 100만 고객일 것이다.
▶ 왜 점점 커지는가?
음경 등·정맥위치와 역할을 고려한 입체적 디자인, 천연자수정의 원적외선, 700가우스의 자기장효과로 음경해면체의 혈액유입량이 평상시보다 30%정도 증가, 더 커지고 굵어지고 단단해진다. 이는 헬스로 근육과 몸집을

뉴 맨 단면도



* 사이즈를 약 5~7mm정도 조절할 수 있도록 이중설계 되었음.

키우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서 새벽의 강한 발기와 관계시의 훨씬 마찰은 점점 더 크고 강한 남성을 만들어 준다. 지금까지 '뉴 맨'을 구입한 50만 가까운 남성대부분이 큰 사이즈로 교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 왜 시간이 연장되는가?
음경몸통 성 신경을 감싸는 음경외피는 피스톤 운동시 팽팽해져서 귀두와 함께 여성기를 마찰하는 게 본인의 임무인데, 보편적인 외피는 팽팽하지 않아 밀리면서 몸통 성 신경을 자극하여 빠른 사정을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뉴 맨'을 착용하면 키지고 굵어지는 효과로 팽팽해진 외피가 성신경의 자극을 줄여주어 시간을 연장시킨다.

▶ 8년간 지켜 온 뉴 맨의 약속!
'15일 사용 후 불만족시 이유없는 반품, 전액환불!' 이 약속은 제품의 자신감과 회사의 책임감에 의한 변함없는 약속이다.



국내 유일 '성기능강화용 링' 특허 획득



평상시 사이즈 단위 cm	뉴 맨 호수
6.5이하	주문제작 1호
6.5	2호
6.75	3호
7	4호
7.5	5호
7.75	6호
8	7호
8.25	8호
8.5	9호
8.75	10호
9	11호
9.25	12호
9.5	13호
9.75	14호
10	15호
10.25	16호
10.5	17호
10.75	18호
11	19호
11.25	20호
11.5	21호
11.75	22호
12	23호
12.25	24호
12.5	25호
12.75	26호
13	27호
13.25	28호
13.5	29호
13.75	30호
14	31호
14.25	32호
14.5	33호
14.75	34호
15	35호
15.25	36호
15.5	37호
15.75	38호
16	39호
16이상	주문제작

T.1577-5579, 010-7636-334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주)케이앤제이스포츠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6-1 한도빌딩 6층